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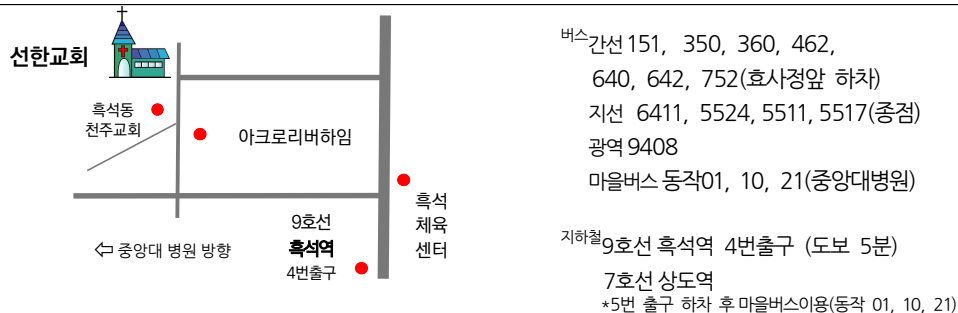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 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50장 (통일찬송가 71장)
	교	독 문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찬	양 과 경 배	358장 (통일찬송가 400장)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요한일서 4장 1절 ~ 6절
	설	교	거짓 영을 분별하라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요인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구영서 집사			
	말	씀	표현 (마 16:13-19) 강성규 선교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롬5:12-21) 임춘배 목사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사 퇴임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강성규 선교사님의 퇴임예배로 드립니다.
 - 성탄절 칸타타** 다음 주일(22일) 오후 3시에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 예결산자료제출** 2019년 결산자료(대상: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와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예산안은 12월 15일(주일)까지, 결산안은 22일(주일)까지 재정부로 (재정부장 : 손영삼 집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위원회모임** 오늘 오후예배 후에 1층 안디옥실에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구영서, 백영미, 손영삼, 손정환, 윤국로, 조계승, 조윤익, 편도선, 허정미
 - 인사위원회모임** 인사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예배 후에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윤호중, 박태수, 이광순, 최영석, 심인섭, 조은혜, 류은영, 김현석, 이용재
 - 2020년도 봉사 신청** 2020년도 희망부서 교사 및 봉사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제출시 현 봉사부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 사무실 / 문의 - 박영근 장로 (인사위원회)
 - 교우 동정** 김혜용 자매님의 부친께서 13일(금) 오후 10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떡 제 공** 오늘은 김진만 오준옥 전도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주셨습니다.

12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2월 1일	관계의 십자가				권현국 목사	
12월 8일	종말론 2강				임춘배 목사	
12월 15일	선교사 퇴임예배				강성규 선교사	
12월 22일	성탄절 칸타타				드림성가대	
12월 29일	부서모임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2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늘 보좌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주일이 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섬기며 세워주는 한주일이 되기를

찬송 :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23장(통 355장)

본문 : 민수기 23장 1~12절

말씀 : 그리스도인들에게 발람은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방해했고, 복술로 많은 돈을 받아 창간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발람 같은 유형의 사람을 이단자나 혹은 이단의 어그러진 길에 빠진 신자라고 경계해왔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은 재물을 좋아하고 명성을 쫓다가 악인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에 사라진 희대의 불가해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관습에 따라 특수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주술사라면서 발람의 역사성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발람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에돔이나 미디안 계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견해가 훨씬 우세합니다.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디에선가 태어났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한 자라면 그가 이스라엘 혈통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는 한 동물의 등장으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고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동물은 나귀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나귀와 두 사람(발락, 발람) 사이의 묘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임의로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허세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고, 또 다른 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지만 그 일은 처음부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1967년 독일의 고고학팀이 요르단의 압북 강어귀에서 발견한 비문을 통해 발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문에는 ‘브울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과 그가 무엇을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문은 발람이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을 있는 그대로 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가진 이러한 선지자적인 모습은 먼 훗날 이스라엘이 배출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영묘한 능력을 갖춘 선지자의 전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활동하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본시 성정이 교활하고 사악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깊게는 모르나 이스라엘의 종교와 유사한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악독한 왕의 청을 거절하고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짧으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본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불의한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타락시키려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만 불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의 망상적 생존방식은 끝이 났습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거짓 영을 분별하라 (요일 4:1-6)

서 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론

1.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 (1) 하나님을 높이느냐 사람을 높이느냐
- (2)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2,3)
- (3)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5,6)

2. 교훈

- (1)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높인다.
- (2)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 (3)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영감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결 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헌 금 위 원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오후예배 기도	김명선 집사	류은영 집사

매일 성경 강독		유다가 받게 될 심판	날짜 : 12월 16일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 / 통일 찬송가 450장)		
통독	예레미야 8장		
본문 내용	본장은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본장은 여러 개의 내용을 지닌 시들의 복합체로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 애가적 표현들이 언급되어 있다. 내용상 구분하면 철저한 유다의 재난과 결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와(1-12절), 임박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반부(13-17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의 애가로 표현하고 있는 후반부(18-22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유다의 위선적 신앙 (1)1-17절: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들의 본능에 대비시켜 책망하시고 이 원인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후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심 (2) 18-22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떠한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기록됨 (3)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져 치유될 수 없는 동족의 아픔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죄악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핵심 단어	7절. 올 때를. 날짐승들이 계절에 따라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원리”
찬양과 기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기러기들이 이주할 때 V 자 비행을 하는 이유는 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서 가는 새가 날갯짓하면 양 날개 끝에서 난기류가 형성되는데, 이 난기류가 상승 기류로 바뀌는 지점에서 뒤따르는 새가 날갯짓을 하면 추가 양력(揚力)을 받아 그만큼 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편대 뒤로 갈수록 새들이 힘을 덜 쓰게 됩니다. V 자로 비행할 때 리더 역할을 하는 새는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동료 새들 중 가장 힘이 세고 경험 많은 새가 말고, 리더 새가 앞서 날다 지치면 뒤에서 날던 새가 자리를 바꾸어서 날아잡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 지어 날면 혼자 날 때보다 71퍼센트나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그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도우며 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에베소서 4:7~16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이는 은혜의 선물이기때 결코 자랑하거나 비교해선 안 됩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 온전한 사람이 되며,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요?(7, 11~12절)	
적용하기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제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악인의 종말	날짜 : 12월 20일
찬양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		
통독	예레미야 12장		
본문 내용	본장은 전장의 후반부에서 다룬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항변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악한 유다 거민들의 비참한 결말을 예언하고 있다. 아울러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아나돗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을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아나돗 거민들의 행동을 통한 유다 거민 전체의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부(14-17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장을 통하여 저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의 독특한 위치를 상기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 (1) 1-4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함 (2) 5-1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아나돗 사람들에게 의한 박해는 장차 그가 당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님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의 침입을 받아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황폐될 것이고 또한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심 (3)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 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12:5)		
핵심 단어	4절. 슬퍼하며. 주로 죽은 자를 위한 애곡 의식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유다의 파멸	날짜 : 12월 17일
찬양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237장 / 통일 찬송가 226장)		
통독	예레미야 9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이다. 특별히 선지자의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독백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배교한 유다의 최종 상태에 대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철저히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악상을 토로하는 전반부와(1-9절), 바벨론의 침입과 추방으로 야기될 유다의 황폐함과 그 파멸의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서술하고 있는 중반부(10-16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개의 선언과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는 후반부(17-26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배교자의 비참한 종말 (1) 1-11절: 예레미야의 애가로, 예레미야를 비탄에 빠지게 한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함 (2) 12-26절: 예레미야와 하나님간의 문답의 형식을 통해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이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를 촉구함.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끝으로 할례 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여호와 의 날에 함께 심판하실 것을 예언 (3) 인간 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핵심 단어	3절. 악으로 진행하며.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더 이상 이웃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하나님과 우상	날짜 : 12월 18일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 통일 찬송가 50장)		
통독	예레미야 10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를 멸망케 한 죄악의 근본적 뿌리, 곧 우상 숭배의 실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장에는 우상 숭배의 무익성이 강조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보응하는 심판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본장은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지적하고 있는 전반부(1-16절)와 임박한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중반부(17-22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23-25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내재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파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논증하는 동시에 유다에 임할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우상숭배의 헛됨 (1) 1-16절: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하며 우상이 피조성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웅장한 언어로 선포한 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력을 비교 제시함 (2) 17-25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후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어린 애가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이어짐 (3) 천지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외에 어떤 헛된 우상도 절대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핵심 단어	2절. 하늘의 징조를.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 등 하늘의 특별한 현상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이방인들의 점성술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언약을 깨뜨린 죄	날짜 : 12월 19일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 통일 찬송가 9장)		
통독	예레미야 11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했던 언약의 율법을 재차 새롭게 언급함으로써 유다의 범죄 행위를 '언약의 파기'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언약 조건에 따른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17절)와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18-23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이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유다의 언약 파기의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 곧 율법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심판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언약을 파기한 유다 (1) 1-1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간에 맺은 언약의 핵심내용(신27:15,16)을 선포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을 상기케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선조들이 언약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해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주지시켰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권고를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함 (2) 18-23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하고,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사실과 예레미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나돗 사람들을 보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함 (3) 예레미야가 맨 처음 고향(아나돗)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써 극복해야 한다.		
핵심 단어	5절. 아멘. '확증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그 말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존재와 인격을 믿음을 뜻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